

광주서 장애·비장애인 배구로 하나되는 축제 열린다

2023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 22~23일 개최 전국 1300여명 참가...야스민·오지영 등 페퍼스 선수단 '일일 일꾼'

배구 매트를 함께 흔들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어울림 축제가 오는 22~23일 이틀간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배구협회는 이 기간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 등지에서 '2023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페퍼컵 배구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다. 대회는 광주시배구협회-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페퍼저축은행-광주시·광주시체육회가 후원한다.

생활체육 동호인 58개 팀과 장애인 좌식 배구 30개 팀 등 1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한다. 대회는 페퍼스타디움과 빗고을 체육관, 광주시체육회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치러진다. 페퍼컵 배구대회는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과 장애인 좌식 배구 동호인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배구를 통해 하나 되자는 취지를 담았다. 광주 여자프로배구단 AI페퍼스 선수단은 대회에서 배구 코트의 숨은 일꾼인 '볼 리트리버'로 활

약한다. AI페퍼스 선수단은 대회 첫날 오전 경기 개최식에 참석한다. 주요 선수인 야스민, 오지영, 이고은, 채선아, MJ필립스 등은 사인회에 나서며 참가자·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해 초대 대회에서는 목포하나클럽(남자부)과 광주빛고을클럽(여자부), 전주JVC(시니어부), 고흥우주항공(실버부), 광산중(유소년부)이 각각 클럽팀 우승을 차지했다.

장애인 좌식 배구 경기에서는 천안&아산(남자부)과 충남엔젤(여자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창단 세 번째 시즌을 맞은 AI페퍼스는 올해 선수단 숙소를 용인에서 광주로 이전하며 광주에 완전히 정착했다.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 인근 아파트에 선수단 숙소를 마련했고, 이곳은 체력 단련 시설과 선수단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이를 통해 선수단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다음 달 시작하는 2023-2024 V-리그에서는 국가대표팀 주장 박정아와 외국인 선수 야스민을 영입해 전력 보강에 힘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생활체육 배구 동호인과 장애인 좌식 배구 동호인 대회가 함께 치러지는 '2023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가 오는 22~23일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 등지에서 열린다. 지난해 경기 모습.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페퍼스 "광주 소상공인 홍보 힘 보태요"

광고비 없이 제휴점 알리는 '페퍼패밀리십' 시작 전광판 광고 제공에 홈 경기 관람권 30% 할인도

여자프로배구단 AI페퍼스가 연고지인 광주 시민과 접촉을 늘리려는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다. AI페퍼스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이 광고 비용 없이 AI페퍼스 제휴점임을 알릴 수 있는 '페퍼패밀리십'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페퍼패밀리십'에 참가하는 소상공인은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AI페퍼스 제휴 사업장을 알리는 명판과 포스터, 스티커 등을 받게 된다.



AI 페퍼스 광주 지역 소상공인 제휴 프로그램 페퍼 패밀리십.

하우스를 광주로 옮기며 연고지 광주에 완전히 정착한 만큼, 지역사회와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휴를 기획했다"며 "페퍼패밀리십을 통해 지역민들과 유대감을 쌓고 광주 배구문화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퍼패밀리십은 연중 모집하며 광주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과 가맹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I페퍼스 구단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자배구 KGC인삼공사 명칭 '정관장'으로 공식 변경

한국배구연맹(KOVO)이 20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여자부 KGC인삼공사의 구단 명칭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KGC인삼공사 스포츠단은 최근 핵심 브랜드 '정관장'을 재단장하면서 스포츠단 명칭을 정관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여자 프로배구단 이름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남자 프로배구단 명칭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 바 있다. 여자배구 정관장은 기존 구단의 동의를 구해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기 전인 지난 10일 열린 여자배구 신인선수 드래프트부터 '정관장' 명칭을 사용해왔다. 정관장은 프로리그 출범 첫해인 2005년 KT&G 배구단으로 시작해 2005-2006시즌부터 2009-2010시즌까지 KT&G 아리엘즈, 2010-2011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10년 넘게 KGC인삼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연립뉴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남체고 카누선수단의 수조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지역선수 경기력 향상 전폭 지원

스포츠과학연구소 통해 AG·전국체전 출전 선수 과학적 훈련 도움

전남도체육회가 산하 기관인 스포츠과학연구소를 통해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지역 대표 선수들의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제19회 황제우 아시안게임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도 대표 선수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퍼포먼스 훈련 및 컨디션닝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소의 훈련 지원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의 지역 엘리트 선수 부상 방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월부터 도 대표 선수단을 대

상으로 500건 이상의 수중 및 육상 퍼포먼스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장흥군과 협력해 17개 시·도 최초 엘리트 선수 대상 수중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상 선수들에게 수중 저항 훈련과 육상 훈련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복귀 시점 단축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문 선수단으로는 장흥군청 육상과 목표시정 육상 및 필드하기, 완도군청 유도, 여수시청 유도, 전남도청 근대5종·우슈·스쿼시, 전남체고 카누, 목포해양대 조정 등이 주기적으로 개인 및 팀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황제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

들 역시 연구소에서 퍼포먼스 훈련에 임하고 있다. 또 부상 선수 훈련으로 시행하는 수중 훈련은 부상 부위에 수압 및 수중 저항을 통한 근 기능 향상 훈련과 근 파워 개선 훈련, 통증 저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상 퍼포먼스 훈련은 플라이오 메트릭(근 파워 훈련)을 개량해 선수 개인별 특성에 맞춰 시험에서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국가가 관리할 수 없는 지역 선수들의 개인 부상 관리와 개별 훈련을 전남도체육회에서 지원함으로써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선수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잠
- 2관 오픈하이머, 타겟, 힙노믹
- 3관 달짝지근해: 7510
- 4관 그란 투리스모
- 5관 가문의 영광: 리턴즈
- 6관 잠
- 9관 베니스 유럽 살인사건, 노크: 더 하우스
- 7관씨네커피 품로, 콘크리트 유토피아, 치약산
- 8관씨네커피 타겟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2023-09-01(금) ~ 30(토) 17:0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2023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소리극 콜비츠와의 대화
일시: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062-613-8235